

다문화 학습자와 중등학교 국어교육

박영민*

< 차 례 >

- I. 서론
- II. 중등학교 다문화 학습자에 대한 이해
- III.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한 국어교육의 방향
- IV. 결론

I. 서론

1998년을 전후로 해서 학령기에 도달했던 다문화 학습자들이 이제는 초등학교를 거쳐 중등학교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교육부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이 약 600명이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200명이다. 2005년으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08년에는 초등학교 재학생이 15,804명이고, 중학교 재학생이 2,213명이며 고등학교 재학생이 761명이다(한겨레신문, 2008년 11월 15일).¹⁾ 현재는 교실에서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만나는 것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다.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 다문화 학습자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일컫는다. 다문화 가정은 문화와 민족이 이질적인 부

* 한국교원대학교, enrapture@empal.com

1) 한겨레신문(2008년 11월 15일 10면)에 보도된 다문화 가정 초·중·고교생 자료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가 결혼하여 성립된 가정을 뜻하는 새로운 조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면서 이주하여 성립된 가정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아버지의 한국 문화와, 어머니의 외국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표현 그대로 ‘다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국어교육은 한국인 부모를 두고 국어만을 모국어로 사용해 온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류적인 학습자들과 달리, 다문화 학습자들은 문화적 환경 및 언어적 환경이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로부터 우성 인자를 물려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류적인 학습자들과 구분되는 인종적 특징도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도 국어교육의 상황 변화에 일조한다. 많은 다문화 학습자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터이므로 중등학교 단계에서 다문화 학습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국어교육을 전개해야 할 것인지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 글에서는 중등학교의 국어교육에서 다문화 학습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교육적으로 다룰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다문화 학습자가 중등학교 국어교육의 장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나 개별 교사의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장인실, 2006). 한국인 부모를 두고 있는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더라도 국가 수준의 정책적인 접근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과 같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논의는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다문화 학습자를 포괄하는 중등 국어교육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데에서

학교급/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초등학생	6,795	11,444	15,804
중학생	924	1,588	2,213
고등학생	279	413	761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이들이 언어 발달, 특히 국어 능력 발달이 지체됨으로써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징후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학습자들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상황이므로 일상적 의사소통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어 능력 중에서도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성장 과정에서, 초등학교 기간 동안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의 표현과 이해가 완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남은 언어의 문제, 국어교육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문화 학습자에 대해 논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국어교육에서 다문화 학습자를 배려한다고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실 별도 프로그램의 운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일종의 차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학습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자타가 그들을 진정으로 ‘별종’으로 만드는 일로 받아들인다. 장애우 학생들을 별도 교육과정으로 지도하는 것보다 통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처럼, 다문화 학습자가 존재하는 국어 수업에서도 국어교육은 여전히 국어교육의 흐름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다문화적 요소를 적절히 추가하고 배합함으로써 결손을 보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Ⅱ. 중등학교 다문화 학습자에 대한 이해

1. 학업 결손의 상황

상당한 수준의 성장에 도달한 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습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유아 및 초등학교 때부터 축적되어 온 언어 능력의 결핍과, 이에 따른 학습 결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국어를 통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대응을 올바로 익히지 못한 다문화 학습자들은 언어 능력과 학습 능력이 올바로 발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오성배, 2007). 문자와 음성의 대응 관계는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와 같은 기초 문해 활동을 통해 익힌다. 그러나 다문화 학습자들은 가정에서의 언어적 지원과 자극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언어 발달, 사고 발달, 학습 발달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문자와 음성의 대응 관계 학습을 도와주어야 할 부모, 특히 어머니가 국어 발음(음운 변동)을 올바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문해 능력의 결핍이 특히 두드러진다. 그래서 청소년으로 성장한 다문화 학습자들은 음성 언어 중심의 일상적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다할지라도 문해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에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혁, 2007).

문해 능력이 떨어지면 음독의 유창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묵독으로의 이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됨으로써 읽기 능력 발달이 더디 이루어진다. 읽기 능력 발달이 뒤처지면 배경지식의 확장, 즉 학습이 떨어지게 되고, 배경 지식의 부족이 다시 성공적인 읽기를 방해하는 악순환이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매튜 효과(Matthew effect)는 언어 능력의 결손이 읽기 능력 발달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문해의 또 다른 축인 쓰기의 경우에도 사정이 비슷하다. 학습의 결과를 문자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문해 능력을 올바로 갖추지 못한 다문화 학습자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문장의 형태, 글의 형태로 표현해야 하는 예가 많아질수록 다문화 학습자들은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 다문화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느끼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심하다.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중등학교에 이르게 되면 다문화 학습자들이 겪는 인지적 부담은 훨씬 커진다. 어휘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내용 학습과 지식 학습이 이루어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논리적으로 다루는 수업이 많아짐으로써,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 다문화 학습자들은 계산식이나 공식으로 표현된 문제는 잘 풀지만, 언어로 진술된 문장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예는 언어의 문제가 학습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학습 결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언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학습 결손의 누적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중등학교 단계에 이른 경우라도 하더라도 언어에 대한 지원은 물릴 수 없는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2. 언어 정체성의 혼란

학습 결손의 문제와 함께, 중등학교 단계의 다문화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시기가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국어를 사고의 언어, 존재의 언어로 삼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물려받은 혈통과 문화는 이국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언어는 국어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는다. 대체로 다문화 학습자들은 중등학교 단계를 거치면 사유의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유지하게 된다. 가정의 환경은 다문화적 속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중등학교 단계의 다문화 학습자들은 국어로 생각하고, 생각의 결과를 국어로 소통하게 된다.

보존적인 언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어머니의 모국어를 익히는 경우, 다문화 학습자들은 이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중등학교 단계를 거치면서 다문화 학습자들은 어머니의 모어가 아니라 국어를 존재의 언어, 사유의 언어로 확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등학교의 국어교육에서는 다문화 학습자를 특별한 언어적 조건에 놓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유지해 온 클 틀의 국어교육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문화적 환경과 요소와 속성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다문화 학습자들은 중등학교 단계를 거치면서 국어를 언어 정체성의 중심에 두게 되지만, 이 과정은 다소 혼란스럽게 전개된다.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학교와 생활 중에 사용하는 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습자들에게는 국어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머니의 언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습자들은 언어의 의미, 획득 과정, 활용의 방법, 다문화 환경의 장점 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문화 학습자들이 중등학교 단계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제기하게 될 것들이다. 보편적인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세계와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묻는 것처럼, 언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문화 학습자들은 언어의 정체성 외에도 표준어와 생활어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국어교육은 표준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학교에서 다루는 학습의 언어와,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언어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정의 언어적 환경이 이질적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므로, 학습 언어와 생활 언어의 차이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학습 언어와 생활 언어의 차이, 대응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모범적인 화자가 없다는 점도 다문화 학습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다문화 학습자들은 우리말을 배우려는 어머니에게 어떤 언어로

도움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문화 학습자들이 이주여성인 어머니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도 어떤 언어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하기 어렵다. 표준어는 생활 언어가 아니어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어는 학습자의 생활에 부합하지 않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도 언어의 정체성 혼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학습 동기의 감소

중등학교의 학습자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학습 동기가 점차 감소한다는 점이다(Svinicki, 2004).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서로 발표하겠다고 다투던 학생들이 중등학교에 들어서면 서로 눈치를 보며 발표를 회피하고 교사와의 시선 접촉마저도 외면하는 예가 증가한다. 특히 효능감과 같은 내적 동기 요인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면서 학습 동기의 전반적인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화한다. 효능감은 학습자의 내적인 자부심이나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인데, 학교 학습이 진행되면서 실패의 경험 이 반복됨에 따라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한다. 읽기와 쓰기의 경우, 초등학교생들보다 중학생들의 동기가 떨어지고,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의 동기가 떨어진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감소하는 것은 동기 자체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학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학교 학습에만 관심을 두던 때에서 벗어나, 세계에 대한 관심,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친구나 이성에 대한 관심들이 새롭게 인식의 지평에 떠오르면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은 보편적으로 겪는 일로 볼 수 있다(Brophy, 2004).

그렇다면 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습자들도 예외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하는 학습자들도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감소하고, 학업 이외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

문화 학습자들은 국어 능력의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고, 학습의 성취 수준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학습 동기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문화 학습자가 아닌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 동기 감소보다 다문화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학습 동기 감소가 더 크고 더 뚜렷할 수 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해 추론컨대, 읽기 동기의 경우에도 다문화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읽기의 모범적인 모델을 찾기 어려우며, 읽기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가정의 지원과 자극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글을 읽었던 경험이 부족하고, 읽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며,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자극, 읽기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다문화 학습자들의 읽기 동기는 그다지 높지 못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읽기 동기는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읽기 능력은 국어교과 및 내용교과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므로, 낮은 수준의 읽기 동기는 학습 결손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 학습자들은 전체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중등학교 단계는 교우 관계가 주요 문제로 인식되는 때인데, 대다수의 학생과 차이가 있는 다문화의 가정 배경은 다른 학생들과의 협력과 대화와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힘을 가하기 이전에, 다문화 학습자들이 먼저 스스로 위축되고 협력적 활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학습 동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서의 문제는 한 영역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집중과 몰입을 요하는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의 집중을 요하는 학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학습 동기가 낮고 학습 태도도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사각 지대로 변화하게 될 수도 있다. 학습은 정서와는 무관한 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인지는 힘을 올바로 발현하기

어렵다. 과제 집중력과 몰입, 열정 등은 모두 정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습과 관련된 인지를 강화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습 동기와 아울러 중등학교 다문화 학습자의 정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실, 다문화 학습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변화의 기간이 매우 짧아 미처 대응을 할 수 없었고,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를 별도로 추구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의 연구처럼, 학습자들의 민족적 배경을 구분하여 국어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국어교육의 정책, 내용, 방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한 국어교육의 방향

1. 국어교육 및 국어 능력의 개념 확장

중등학교 다문화 학습자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국어를 언어 정체성의 핵심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논의하였다. 다문화 학습자들이 언어 정체성을 국어에서 찾는다면, 현재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은 현재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문화 학습자를 배려하는 형태로 교육의 목표나 방향을 크게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오히려 언어의 정체성 확립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국어를 생활의 언어로 활용해 온 만큼 현재의 국어교육을 유지하는 데 따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습자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다문화적 속성이나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국어교육의 범위를 확장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습자를 함께 아우르는 국어교육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국어만을 중심으로 한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다문화적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가치, 이해, 수용을 견지하는 목표로 수정하는 것이다(장인실, 2008). 국어 능력의 신장, 국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은 기본적인 목표로 유지하면서 다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함께 기르도록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목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사실은 국어 교육의 목표를 확장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표의 확장은 사실 국어교육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고 있는 국어 능력의 확장에 해당한다. 국어교육의 목표는 국어 능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 능력에 다문화적 속성을 부여한다면, ‘국어만’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어를’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확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어만의 능력이 아니라, 국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다른 문화(특히 언어)와의 관계, 다른 문화의 가치 발견 및 수용이 국어 능력에 포함된다.

또한, 다문화적 속성을 교육과정 항목이나 내용에 포함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 요소의 예에 다문화적 속성을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학습 활동의 예나 학생 활동의 예에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 활동의 예를 ‘기본’과 ‘심화’로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로 다문화적 요소를 소화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의 요소나 속성을 포함한다면 과급력이 매우 클 것이다.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하는 국어교육의 방향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언급을 가장 먼저 전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의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가 수준에서 발행하는 다른 형태의 문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의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학년별 성취기준 개발과 같은 데에서 다

문화의 요소나 속성을 활용하는 예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수용된다면 과급력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을 곧바로 수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2. 국어 수업 문화의 수정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한 중등학교의 국어교육은 수업 문화의 수정이라는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효율과 성장을 학교 교육의 주요 가치로 내세우면서 교실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국어교육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발과 배치를 중심으로 한 교실 수업은 경쟁 문화를 심어줌으로써 협조적인 동료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동료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읽기와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검토해 보더라도 국어 수업의 문화가 경쟁적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읽기 동기와 쓰기 동기에서 상호작용 요인의 영향과, 외적 동기인 보상 요인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국어 수업 문화는 모든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 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학습자들이 다른 학생들이 겪는 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다문화 학습자들은 경쟁에 익숙하지 못하며, 경쟁에 나서는 데 필요한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또한 다문화 학습자들은 소집단 협동 학습의 상황에서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학생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협력 학습에서 경계해야 할 무임승차자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경쟁적인 국어 수업 문화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가능성은 항상 문제의 원인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국어 수업의 문화를 협력적인 체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의 제도와 틀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교실 수업의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과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단위의 노력, 교사 단위의 노력으로도 상당 부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보다 학교 수준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더욱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 수업 문화를 협력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성취 수준을 근간으로 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국어 수업 시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최소한의 성취 수준으로 잡고, 이를 위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한다면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의 경쟁을 줄이는 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실 수업의 문화가 개선된다면 다문화 학습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소집단 학습도 경쟁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다문화 학습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소집단 협력 학습을 투입할 경우, 이들이 무임 승차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집단 협력 학습을 안내할 때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다문화 학습자들의 기여 정도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소집단 목표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국어교사가 명시해 줌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국어교사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협력적인 학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담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다문화 학습자들에게 배척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국어 수업 문화에서 다문화 학습자들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국어교사의 소양을 다문화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어교사들은 국어를 단일어로 하는 관점과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채택해 온 국어 교육의 관점은 단일 민족, 단일 언어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어교사의 소양을 국어 중심의 단일어적 차원으로부터 다문화적인 차원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하고, 제2언어의 개념 및 가치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중등학교 단계의 다문화 학습자가 처한 환경과 문제를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교사가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관점과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충족하고 있다면 다문화 학습자들의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원진숙, 2007 ; 서혁, 2007). 국어 수업의 경쟁적인 문화를 탈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어 수업 시간에 다문화 학습자들을 직접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어교사의 관점, 가치, 태도의 변화가 다문화 학습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실천적인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어교사의 접근 관점, 가치, 태도를 다문화적 차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성 과정에서부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 학습에 대한 철학과 방법을 익힐 때 다문화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다문화 학습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동시에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 과정이므로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직 국어교사에 대한 연수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연수 기관을 통해 다문화 및 다문화 학습자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국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습 언어에 대한 교육과 지원

다문화 학습자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일상 언어 기반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학습 어휘의 빈곤이다. 중등학교에 진학한 다문화 학습자는 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는 통달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문화 학습자의 경우에는 어감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음이의어를 통한 농담, 상황 맥락이 개입된 반어까지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수준의 다문화 학습자는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다.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국어를 사용하면서 성장한 학생들은 이주여성인 어머니의 언어를 교정해주는 일을 맡기도 한다.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국어를 생활의 언어,

놀이의 언어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국어를 통달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중등학교에 진학한 다문화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일상적 수준의 의사소통을 강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습 언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학습 언어란 학교에서 다루는 각 교과와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개념어나 핵심어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뜻한다. 학습 언어는 지식이나 내용에 대한 학습, 이해, 표현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능력이 떨어질 때에는 학습 결손이라는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서혁, 2007). 국어교과를 예로 든다면, 음운이나 형태소, 플롯이나 인물의 성격 등과 같은 개념어 등이 학습 언어에 속한다. 이러한 학습 언어는 일상 언어와 차원을 달리한다. 일상적 대화나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학습과 이해를 통해서 익혀야 할 언어이기 때문이다. 언어에 대한 언어, 즉 메타언어도 학습 언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들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다문화 학습자들이 학습 언어에 약하다고 보는 것은 중등학교 이전 시기의 학습 언어 결핍이 선행하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이 개입되어 있는 어휘나 역사적 맥락이 개입되어 있는 어휘의 경우에는 다문화 학습자들이 취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휘 학습의 많은 부분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이에 대한 학습 지원이 충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상적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맥락이 개입되어 있는 어휘들을 매우 어려워한다. 이주 여성인 어머니가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개입되어 있는 어휘를 어려워한다면, 그 자녀들인 다문화 학습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등학교 단계의 다문화 학습자들에게는 학습 언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교과와 개념이나 지식을 이루는 학습 언어들은 각 교과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기초를 기르는 데에는 국어교육의 힘을 빌지 않을 수 없다. 국어교육이 방법 교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문화 학습자들의 학습 언어를 지

원하는 데에는 국어교육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다.

중등학교 다문화 학습자들의 학습 언어를 위해서는 한자어와 관련된 어휘 지도를 도입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는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어휘 지도를 강조하지 않았다. 글을 읽는 경험, 감상하는 경험을 강조했지 어휘 자체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문화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어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개입된 어휘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읽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에서 읽기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익힐 수 있는 읽기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박영목 외, 2001).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 선택적 독서 단계에 도달하지만, 다문화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독서 목록을 제공하여 처방된 프로그램에 따라 읽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박영목 외, 2003). 이 과정에서 다문화 학습자의 음독의 유창성을 기르는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음독의 유창성이 떨어질 경우, 묵독으로 통한 글의 의미 이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이경화 외, 2007).

어휘 학습과, 어휘 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확충하는 데에는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다. 다문화 학습자들이 어휘력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이에 따라 학습 어휘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양이 부족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교과서 읽기, 교과서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 읽기,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책 읽기 등을 병행할 수 있다.

4. 국어교과서 구성의 변화 모색

중등학교 단계에서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하는 국어교육을 위해서는 국어교과서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국어교과서는 학습자들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접하는 매우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교과서의 구성 변화는 다문화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향은 국어교과서를 다문화 학습자에게 맞게 수정한다는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견지해 온 국어교육의 방향을 유지하되 다문화적 요소나 속성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하는 국어교과서라면 단원의 편성을 주제 중심으로 1차적인 원리로 삼고 그 아래에 목표 성취를 지향하는 체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 학습자들이 아닌 경우에도 주제 중심의 단원 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교과서 구성의 방향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집단의 학습자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문화 학습자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주제 중심의 단원은 다문화 학습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점과 문화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제 중심의 단위에서는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읽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박영민·최숙기, 2006).

주제 중심의 단원 구성을 하나의 방향으로 삼더라도 국어교육의 목표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친숙한 주제로 묶인 자료를 읽고 활동하되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지적 기능을 성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주제에 따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읽고, 언어활동을 전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구성 체제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검정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거니와, 다문화 학습자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원리와 방법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어교과서에서 세계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어로 생산된 작품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국문학 중심의 체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다문화적인 관점을 수용하여 다른 나라의 문학 작품을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읽기의 본 체제로 다룰 수도 있고, 학습 활동의 한 예로,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한 더 읽기 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다양한 문화에 존재하는 가치를 알게 하고, 그러한 가치가 우

리 국어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깨닫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 문학을 수용하면, 다문화 학습자들 자신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문화 학습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학습 효능감을 기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IV. 결론

우리나라에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매우 많이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접근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의 하나는 우리 국어를 제2언어로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이다. ‘한국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여러 프로그램이 그 예에 속한다. 이주 여성은 본래 자기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국어가 제2언어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원진숙, 2007).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지닌 한국인으로 태어나 국어를 기반으로 하여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는 제2언어 교육의 접근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학습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이들에게 필요한 언어교육은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바로 ‘국어 교육’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학습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어교육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성인으로서, 본래의 모국어를 지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달리, 학생들은 국어교육의 학습자로 인식하고 다루어 가야 한다. 가정의 문화적 환경과 언어적 환경이 다소 이질적이지만, 국어로 의사소통하고 국어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제2언어의 교육적 접근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도달한 다문화 학습자는 사고의 체계를 국어로 구성하는 데 근접해 있다. 이들에게는 국어교육의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하다(최미숙 외, 2008).

그러나 기존 국어교육의 틀을 고수하면서 다문화 학습자들이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다. 다문화 학습자들은 이질적인 언어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언어의 발달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의 전반적인 틀은 유지하되 다문화적 요소와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하기 위하여 국어교육의 방향과 요소를 일부 수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학습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들을 국어교육의 소수로만 치부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학습자들은 국어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인 언어, 즉 국어와 결부된 문제 상황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어교육의 조건들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네 가지로 탐색하였다. 첫째는 국어교육 및 국어 능력의 개념 변화, 둘째는 국어 수업 문화의 수정, 셋째는 학습 언어에 대한 교육과 지도, 넷째는 국어교과서 구성의 변화 모색으로 정리하였다.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문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학습자들이 공유하는 특징이 학습 동기 및 학습 효능감의 감소인데, 다문화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와 결과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Brophy, 2004). 전문적인 상담이나 협의에 의한 지도가 요청될 수도 있다. 국어교육 자체에 대한 학습 동기와 학습 효능감이 낮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다문화 학습자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학습 동기와 효능감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09. 2. 27. 투고되었으며, 2009. 3. 3. 심사가 시작되어 2009. 3.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박영목 외(2001), 창의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독서지도 모형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교육부인적자원부.
- 박영목 외(2003), 국어교육학 원론, 박이정.
- 박영민 · 최숙기(2006),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단위 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4, pp.67~84.
- 서혁(2007),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의 관계 설정, 국어교육학연구 30, pp.51~83.
- 오성배(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Kosian)의 교육 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22, pp.186~213.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30, pp.23~47.
- 이경화 외(2007), 교과 독서와 세상 읽기, 박이정.
- 장인실(2006),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4 (4), pp.27~53.
- 장인실(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 (2), pp.281~305.
-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한겨레 신문, 2008년 11월 15일(토)자.
- Svinicki, M. D.(2004), *Learning and Motivation in the Postsecondary Classroom*, MA : Anker Publishing Company, Inc.
- Brophy, J.(2004), *Motivating Students to Learn*(2nd ed.),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

<초록>

다문화 학습자와 중등학교 국어교육

박영민

이 글은 중등학교의 국어교육에서 어떤 방향에서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하여 교육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등학교 교실에서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학습자들을 찾아보는 것은 이제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다. 매우 많은 수의 다문화 학습자들이 초등학교를 거쳐 중등학교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학습자들은 언어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이질적이므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국어교육의 틀을 통해서는 국어교육의 목표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틀은 다문화를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조건들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좀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국어교육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네 가지로 논의하였다. 첫째는 국어교육 및 국어 능력의 개념 변화, 둘째는 국어 수업 문화의 수정, 셋째는 학습 언어에 대한 교육과 지도, 넷째는 국어교과서 구성의 변화 모색이다. 이와 아울러 다문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강조하였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은 학습 동기의 감소인데, 환경이 다른 다문화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핵심어】 다문화, 다문화 학습자, 국어교육의 방법,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의 다문화

<Abstract>

Direction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Multicultural
Learners in Secondary Schools

Park, Young-min

This paper investigated how to educate multicultural learners in secondary schools. It is ordinary situation to find multicultural learners in secondary classroom nowadays. Many multicultural learners are entering the secondary schools after graduating elementary schools. Because they have unfamiliar environment from other Korean nativ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last fram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urriculum. When the frame of them reform for multicultural students, there are efficient and better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 that these are four the direction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First, revising the concepts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competence, second, reforming the classroom culture of Korea secondary school for multicultural students. Third, teaching the learning words, or vocabulary for learning in content area subjects. In addition to these directions, it is important for multicultural students to activate the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efficacy. multicultural students need more bigger motivation to engage learning against Korea native students.

【Key words】 multiculture, multicultural students, direct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ulticultur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토론문】

“다문화 학습자와 중등학교 국어교육”에 대한 토론문

김정우(영남대학교)

이 발표문은 한국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중 학교급으로는 주로 ‘중등’에, 그리고 과목은 ‘국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다문화 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논의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연구와 같이 학교급과 과목을 물론이고, 다문화 구성 양상, 지역 등으로 세분화한 연구들이 현실에 밀착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때,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시의성이나 연구의 문제의식, 방법 등에 큰 이견이 없으며, 논지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현황 판단에 실증적인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표본 수를 바탕으로 최근의 실태나 변화 양상을 진단하는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개인 연구자의 단기 연구 논문이므로 기본적인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헤아리고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은 적은 표본으로라도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다문화 학습자의 경우 초등에서 중등으로 진학하면서 “국어 능력의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고, 학습의 성취 수준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학습 동기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다문화 학습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 동기가 낮은 수준이었을 것이므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습 동기의 감소폭은 오히려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 문제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실태를 진단하고 있는데,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대책이나 교육적 처치가 달라질 것이므로 보다 현실에 근거한 진단과 현황 파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발표는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주로 ‘제2언어 교육’이나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으로 파악했던 연구들과는 달리 분명하게 ‘(자)국어교육’의 개념의 확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토론자도 기본적으로는 발표자의 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학습자의 상황이나 수준에 따라서는 성격이 다른 교육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이 연구는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등 국어’ 교육 이외에 다른 변수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존 관점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개념적 단순화가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이중언어나 제2언어로서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없겠는지,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린다.

셋째, 위 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 학습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서론을 보면 다문화 가정은 ‘일반적으로는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면서 이주하여 성립된 가정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소개하는 차원인지, 이 발표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제한적 개념 규정인지 불분명하다(그리고 이것이 정말 일반적인지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이다). 이른바 ① 국제결혼 가정, ② 외국인 근로자 가정, ③ 새터민 가정 등의 범주 가운데 ‘국어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집단은 분명 새터민 쪽일 것이고, 반면 이 발표에서 초점을 맞춘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는 ‘이중언어로서의 교육’이 중등 교육에서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 발표는 국어교육의 논의의 폭을 넓히고 새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담고 있다. 부족한 토론으로 이 논의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